# 國際企業의 現況과 展望

閔 相 基
(서울大 經營大 助敎授)

## 1. 序

企業의 國際化라 하면 우리나라 企業家들에게도 이제는 아주 귀에 익은 어휘가 된 것 같다. 全世界 각처에로의 韓國商品의 輸出은 勿論 輸出을 위한 원자재 輸入先의 國際化 또는 새로운 工場을 세우기 위한 국제차관先의 國際化 등 확실히 한국기업도 그 기업 영역이 國內의 테두리에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現今 國際經濟에서 단순 수입 수출보다도 더 큰 關心을 끌고 있는 것은 6, 7個以上 國家에 生產施設을 설치하여 무역대신 現地生產을 하여 販賣하는 多國籍企業의 급격한 증가이다. 勿論 2차세계대전 以前에도 식민지들을 中心으로 하여 유럽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형태를 갖춘 일도 있으나 主로 석유개발 및 鑛業 等의 특수산업에 한정이 되어 있었으며 전세계 貿易量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關心거리가 되지는 않았으나 2차세계대전 以後 특히 1960年 以後에 주로 先進國등을 中心으로 한 多國籍企業의 成長은 投資對象國, 投資母國 나아가서는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당해 國家의 政策立案者나 學者들은 勿論 一般사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 형태의 海外投資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投資대상국 입장에서 해외다국적 기업을 國內에 유인하여 資本과 技術이 미흡한 경제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발시키기 위한데 努力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체들도 그 규모가 커져서 海外資源開發事業을 필두로 외국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 2. 해외投資의 現況

해외投資는 크게 나눠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와 直接투자로 二分할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投資는 외국의 채권이나 정기예금 等에 투자를 하여 利子수익을 노리는 것이 주종이며 외국기업의 주식에 投資를 하더라도 投資된 기업의 운영에는 간여하지 않고 단지 배당수익이나 株價의 상승 等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直接投資는 합작투자와 같이 投資대상국의 주주와 나누어 가지거나 또는 100프로 전부 투자하는 등 持分의 차이는 있으나 투자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投資와 근본적으로 틀린다. 本稿에서는 해외投資를 협의로 정의하여 直接 경영에 참여하는 直接投資들만을 硏究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投資는 경영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순전히 財務的 側面의 豫想收益率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投資動機가 直接投資와는 많이 틀리기 때문이다.

〈表 1〉에는 投資母國의 國別 1914年부터 1970年 1970까지의 「年平均 새로 세워진 해외支社의 設立數」가 나타나 있는데 이 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제2차대전을 계기로 海外支社의 設立이 급격히 불어 났다는 事實과 둘째는 역시 海外投資는 單位國家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2차대전前까지는 年平均 약 20~30個의 海外支社만이 設立되던 것이 이제는 이의 약 10倍가 넘는 年平均 약 200~300個의 海外支社의 設立으로 그 빈도數

〈表 1〉 國別年平均新海外支社設立數(1914~70)

| 年 度 | 美國係 | 英國係 | 유럽係 | 日本係 |
|---|---|---|---|---|
| 1914 ~ 19 | 11.8 | 4.5 | 8.5 | 0.0 |
| 1920 ~ 9 | 29.9 | 11.8 | 24.9 | 0.1 |
| 1930 ~ 8 | 35.0 | 11.0 | 12.4 | 0.3 |
| 1939 ~ 45 | 24.6 | 4.8 | 9.3 | 5.7 |
| 1946 ~ 52 | 55.1 | 28.8 | 18.4 | 0.3 |
| 1953 ~ 5 | 94.3 | 18.3 | 39.0 | 1.7 |
| 1956 ~ 8 | 146.3 | 31.3 | 43.7 | 4.7 |
| 1959 ~ 61 | 300.3 | 111.0 | 77.3 | 14.7 |
| 1962 ~ 4 | 319.7 | 196.3 | 76.3 | 30.0 |
| 1965 ~ 7 | 296.3 | 153.0 | 177.3 | 37.7 |
| 1968 ~ 70 | N.A. | 243.0 | 343.3 | 70.0 |

자료 : J.W. Vaupol and J.P. Curhan. "The World Multinational Enterprisos" (Goneva, 1974).

가 늘어 났으며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英國係 및 유럽係의 企業에게도 一般的인 현상이다.

世界主要經濟國家中 日本은 海外投資面에 있어서 현저하게 뒤처져 있던 것이 事實이다. 2차 대전 직전에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던 海外投資도 敗戰과 동시에 거의 사라지고 1960年代에 들어와서야 겨우 적극적으로 海外進出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규모로 보아 다른 經濟大國들과는 비교가 안되리만큼 낮은 수준이다.

海外投資에 있어서의 美國의 壓度的인 位置는 表 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即 1971年 現在 장부價格(Book Value)에 依한 世界 全體의 總對外投資殘高인 1,650億불중 美國系會社의 對外投資殘高는 860億불로써 50%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다음으로는 歷史的으로 식민지를 中心으로 하여 海外投資가 많은 英國이 二位 그 다음 프랑스 서독 스위스 等의 順序이다. 日本은 對外投資殘高가 44億8千萬弗로써 스위스의 67億6千萬弗보다 훨씬 적은 데 1971年의 日本의 國民總生產額이 2,573億弗로써 스위스의 245億弗의 10倍가 넘는다는 事實에 비추어 볼 때 日本이 海外投資 방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表 2〉에서 發見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事實은 1971年 現在 國際生產高가 輸出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即 자기나라 內에서 生產하여 外國에 販賣하는 輸出總額이 3,119億弗인데 反해 海外에서 生產하여 現地에서 販賣한 國際生產高는

〈表 2〉 市場經濟諸國의 國際生產高와 輸出(1971年)

(單位 : 百萬弗)

| 國 名 | 對外投資殘高(簿價) | 國際生產高(推計) | 輸 出 | 國際生產高의 對輸出比率(%) |
|---|---|---|---|---|
| 美 國 | 86,000 | 172,000 | 43,492 | 395.0 |
| 英 國 | 24.020 | 48,000 | 22,367 | 214.6 |
| 프 랑 스 | 9,540 | 19,100 | 20,420 | 93.5 |
| 西 獨 | 7,270 | 14,600 | 39,040 | 37.4 |
| 스 위 스 | 6,760 | 13,500 | 5,728 | 235.7 |
| 캐 나 다 | 5,930 | 11,900 | 17,582 | 67.7 |
| 日 本 | 4,480 | 9,000 | 24,019 | 37.5 |
| 네 덜 란 드 | 3,590 | 7,200 | 13,927 | 51.7 |
| 스 웨 덴 | 3,450 | 6,900 | 7,465 | 92.4 |
| 이 탈 리 아 | 3,350 | 6,700 | 15,111 | 44.3 |
| 벨 기 에 | 3,250 | 6.500 | 12,392 | 52.4 |
| 오스트레일리아 | 610 | 1.200 | 5,070 | 23.7 |
| 포 르 투 갈 | 320 | 600 | 1,052 | 51.0 |
| 덴 마 아 크 | 310 | 600 | 3,685 | 16.3 |
| 노 르 웨 이 | 90 | 200 | 2,563 | 7.8 |
| 오 스 트 리 아 | 40 | 100 | 3,169 | 3.2 |
| 小 計 | 159,000 | 318,000 | 237,082 | 133.7 |
| 其 他 | 6,000 | 12,000 | 74,818 | 16.0 |
| 合 計 | 165,000 | 330,000 | 311,900 | 105.8 |

자료 : 반병길 "다국적기업론" 박영사 1975 p.491

3,300億弗로써 輸出總額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海外市場 침투라면 當然히 輸出만을 생각하는 一般企業家들에게는 分明히 놀라운 事實이며 이제는 海外生產에 依한 海外市場 침투戰略이 例外的인 것이 아니라 輸出보다 오히려 重要性이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國際生產高와 輸出對比에서도 國別차이는 뚜렷이 나타나고는 있다. 即 美國, 英國, 스위스 같이 比較的 海外投資에 일찍 눈을 뜬 나라는 國際生產高가 輸出의 2~3倍 정도로 많은가하면 西獨과 日本같은 나라는 主로 自國市場에서 生產하여 外國에 輸出을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國別차이는 자동차공업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데 美國의 제너랄·모터스, 포드 및 크라이슬러와 같은 자동차회사들은 海外市場을 침투하기 위해 대개 海外市場 現地에 合作投資나 100%投資의 現地工場을 차려 공급하고 있는 反面 日本의 도요다, 닷선이나 西獨의 폭스바겐, 벤쯔 등은 自國에서 생산된 소형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西獨, 日本 等地의 노동임금인상, 엔과 마르크

의 평가절상 등으로 폭스바겐이나 도요다가 美國에 現地生產工場을 차렸거나 차릴 준비를 하고 있어 西獨과 日本도 輸出中心체제에서 國際生產체제로의 전환이 곧 일어날 것으로 보여 國別차이도 相對的으로 줄어질 展望이다.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生產高가 輸出보다 크다는 것은 確實히 놀라운 사실이나 一般的으로 多國籍企業의 世界經濟에서의 位置를 論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企業들의 규모들인 것 같다. 〈表 3〉에는 生產高로 본 世界諸國과 多國籍企業의 順位들이 나타나 있는데 世界의 生產業體中 가장 큰 EXXON과 제너랄·모터스는 年間賣上이 470億弗 이상으로 最近 石油價 인상으로 부유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國民總生產額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1976年의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產額은 약 250億弗이었는데 前記한 두 會社외에도 Shell, Ford 자동차, Texaco, Mobil 等의 會社들은 單位會社로써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產額을 상회하는 매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事實 生產高로 본 世界諸國과 多國籍企業의 100位 이내에는 多國籍企業이 57個나 들어가 있어 一個 會社의 生產高가 一國의 總生產額보다 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表 3〉 生產高로 본 世界諸國과 多國籍企業의 順位
—1976—

| | | |
|---|---|---|
| 1. | 美國 | 1,706.50 |
| 2. | 소련 | N.A. |
| 3. | 日本 | 561.54 |
| 4. | 獨逸 | 475.68 |
| 5. | 프랑스 | 334.72 |
| 6. | 英國 | 200.49 |
| 7. | 카나다 | 188.30 |
| 8. | 이태리 | 161.69 |
| 9. | 브라질 | 109.76 |
| 10. | 스페인 | 102.04 |
| 11. | 네덜란드 | 96.32 |
| 12. | 인디아 | 80.21 |
| 13. | 벨기에 | 73.45 |
| 14. | 호주 | 70.20 |
| 15. | 이란 | 66.32 |
| 16. | 스웨덴 | 65.18 |
| 17. | 스위스 | 59.54 |
| 18. | Exxon | 48.63 |
| 19. | General Motors | 47.18 |
| 20. | 오스트리아 | 43.46 |
| 21. | 사우디아라비아 | 41.20 |
| 22. | 터어키 | 40.21 |
| 23. | 덴마아크 | 39.90 |
| 24. | 인도네시아 | 36.23 |
| 25. | Royal Dutch Shell Group | 33.04 |
| 26. | 베네주엘라 | 31.11 |
| 27. | Ford | 28.84 |
| 28. | 핀란드 | 28.44 |
| 29. | Texaco | 26.45 |
| 30. | 노르웨이 | 26.15 |
| 31. | Mobil | 26.06 |
| 32. | 韓國 | 25.09 |
| 33. | 南아프리카 | 24.11 |
| 34. | 그리이스 | 22.65 |
| 35. | 아르헨티나 | 21.53 |
| 36. | Standard Oil of California | 19.43 |
| 37. | British Petroleum | 18.27 |
| 38. | 필리핀 | 17.75 |
| 39. | 中華民國 | 17.73 |
| 40. | National Iranian Oil | 16.80 |
| 41. | Gulf Oil | 16.45 |
| 42. | I.B.M. | 16.30 |
| 43. | 태국 | 16.24 |
| 44. | G.E. | 15.70 |
| 45. | Chryslor | 15.54 |
| 46. | 포르투갈 | 13.70* |
| 47. | Unilover | 13.67 |
| 48. | 뉴질랜드 | 13.49 |
| 49. | 파키스탄 | 13.41 |
| 50. | 콜롬비아 | 12.44 |
| 51. | International Tel. & Tel. | 11.76 |
| 52. | Standard Oil (Ind.) | 11.53 |
| 53. | 이스라엘 | 10.98 |
| 54. | 페루 | 10.92 |
| 55. | 말레이지아 | 10.62 |
| 56. | Philips' Gloeilampenfabrieken | 9.42 |
| 57. | Shell Oil | 9.23 |
| 58. | Cia Française | 8.91 |
| 59. | Mippon Stoel | 8.84 |
| 60. | August Thyssenhütte | 8.66 |
| 61. | U.S.Steel | 8.60 |
| 62. | BASF | 8.49 |
| 63. | 칠레 | 8.48 |
| 64. | Atlantic Richfield | 8.46 |
| 65. | 모로코 | 8.41 |
| 66. | Du Pont | 8.37 |
| 67. | Continental Oil | 7.96 |

| | | |
|---|---|---|
| 68. | Hoechet | 7.82 |
| 69. | ENI | 7.17 |
| 70. | Western Electric | 6.93 |
| 71. | ICI | 6.91 |
| 72. | Siemens | 6.70 |
| 73. | Volks Wagen-work | 6.57 |
| 74. | Proctor & Gamble | 6.51 |
| 75. | Tenneco | 6.39 |
| 76. | Union Cambridge | 6.35 |
| 77. | Bayer | 6.30 |
| 78. | Daimler-Benz | 6.29 |
| 79. | Montedison | 6.19 |
| 80. | Aitachi | 6.18 |
| 81. | Westinghouse Electric | 6.15 |
| 82. | Toyota Motor | 5.95 |
| 83. | ECF Group | 5.90 |
| 84. | 싱 가 포 르 | 5.82 |
| 85. | Goodyear Tire | 5.76 |
| 86. | Phillips Petroleum | 5.70 |
| 87. | 자 이 레 | 5.66 |
| 88. | Dow Chemical | 5.65 |
| 89. | Mitsubishi Heavy | 5.65 |
| 90. | Nestl'e | 5.60 |
| 91. | Occidental Petroleum | 5.53 |
| 92. | International Harvester | 5.49 |
| 93. | Eastman Kodak | 5.44 |
| 94. | Sun | 5.39 |
| 95. | Union Oil of California | 5.35 |
| 96. | Renault | 5.34 |
| 97. | British Steel | 5.34 |
| 98. | RCA | 5.33 |
| 99. | Esmakk | 5.30 |
| 100. | Bethlehem Steel | 5.25 |

* 1975年 자료

자료 : ① 各國 國民總生產額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② 多國籍企業의 販賣額은 1977年 Fortune誌 5月號

〈表 3〉은 多國籍企業의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表이나 가령 제너랄·모터스란 一個 生產業體가 대한민국이란 一國의 總生產額보다 크다는 것이 진정 어떤 意味를 나타내어 줄 것인가? 生產額이 더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제너랄·모터스會社가 우리나라보다 世界經濟에 공헌하는 바나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뜻일까? 1970年初 전신전화회사인 美國의 I.T.T.가 칠레정부에 미친 영향을 회고하면서 많은 學者들이나 실무자 중에서 사실 多國籍企業이 特定한 國家보다 더 强力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多國籍企業의 販賣高는 一國의 國民總生產額과 直接的인 比較는 할 수 없다. 即 一國의 國民總生產額은 特定期間中의 附加價值의 總計인데 反하여 多國籍企業의 販賣高는 그 企業의 附加價值가 아니라 單純한 販賣高이며 國民總生產額에 상당하는 그 企業자체의 附加價值는 그 企業이 生產에 필요로 하여 購入한 原價를 除한 數値이어야 할 것이다. 各 企業當 原價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 企業의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算出할 수는 없으나 多國籍企業의 資產의 20% 附加價值를 그리고 고용원 一人當 $ 5,000의 附加價值를 창출한다는 假定하에서 多國籍企業의 부가가치를 推定해 보면 제너랄·모터스의 부가가치는 약 86億弗 정도가 되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의 總計인 國民總生產額 250億弗의 約 $\frac{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國의 國民總生產額과 多國籍企業의 直接的 比較의 둘째 문제점은 特定한 나라들이 主權國家인데 反하여 多國籍이 아무리 크더라도 特定한 主權國家에 소속되어 있는 一個企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U.N.이나 IMF 等의 世界기구에는 國民總生產額이 10億弗도 되지 않는 말라위國은 참가를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로 보더라도 말라위의 8倍가 넘는 제너랄·모터스는 主權國家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主權國家는 아무리 적더라도 世界經濟의 질서나 환경을 결정할 權利가 있으나 多國籍企業은 아무리 크더라도 自體的으로 世界經濟의 질서나 환경을 창조할 힘은 없고 主權國家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할 따름이다.

多國籍企業과 主權國家에서 또한 주의해야 할 點은 例를 들어 제너랄·모터스의 販賣高가 470億弗이 넘는다하여 많은 主權國家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全世界에 있는 모든 本支店의 販賣高 또는 부가가치를 總合하여 이루어진 숫자이지 아무 特定國에서라도 그 國家內에 있는 제너랄·모터스의 販賣高나 부가가치는 그 나라의

國民總生產額보다 클 수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에서 生產活動을 할려면 그 나라의 정치·경제정책의 테두리안에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側를 들어 제너랄·모터스의 한국지점인 새한자동차의 販賣高는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產額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새한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營業행위를 할려면 우리나라 정부의 政治·經濟的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어느 누구라도 새한자동차가 우리나라 政府보다 强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3. 海外投資의 動機

E.J. Kolde의 1959年度 조사에 의하면 그 當時 美國企業의 海外進出要因들 중에는 輸入國의 關稅장벽 等의 輸入制限을 넘기 위한 것과 또한 後進國의 勞動力, 原材料 等의 저렴한 生產費用等이 海外投資에 重要한 要因으로 나타나 있었으나 美國 貿易에 대한 긴급위원회가 1972年에 행한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海外市場의 積極的인 침투가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나타나 있어 時代에 따른 海外投資動機의 변천을 보여 주고 있다. (表 4와 5)

이러한 投資動機의 변천은 또한 多國籍企業들의 投資對象國의 分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市場침투가 主目的이기 때문에 多國籍企業의 海外生產施設이 大部分 勞動원가가 싸고 수입제한이 많은 개발도상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이 넓은 EEC나 美國等에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다. (表 6)

이렇게 一般的으로 先進國에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가 많이 일어 난데 비해 日本은 例外的으로서 日本의 最近까지의 海外投資는 대개 東南아시아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目的은 東南아시아 市場의 침투에 있다기 보다는 初期단계의 美國 多國籍企業들의 海外投資 動機에 잘 나타난 저렴한 勞動力의 利用에 目的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日本의 輸出에 補完的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表 4〉 美國企業의 海外進出要因 : 調査時點1959年

| 順位 | 主 要 動 機 | 比率(%) |
|---|---|---|
| ① | 法的 制限(關稅·輸入制限 등) | 21 |
| ② | 저렴한 生產費用(勞動力, 原材料, 製造過程에서의 節約) | 20 |
| ③ | 旣存現地生產機構의 非效率性 | 14 |
| ④ | 競爭關係에서 오는 자극 | 12 |
| ⑤ | 國際的 仲介入에 대한 不滿 | 11 |
| ⑥ | 長期擴張政策에 의하여 | 7 |
| ⑦ | 外國企業 或은 現地 政府에 의한 권유 | 6 |
| ⑧ | 稅金上의 利點 | 4 |
| ⑨ | 其 他 | 5 |
| 合 計 | | 100 |

資料 : Kolde. E.J. International Business Enterprise, Prentice Hall. Inc., 1968. p. 233.
안태호·김완행 공저, "국제경영론", 박영사, 1977, p.49

〈表 5〉 海外投資의 決定要因

| 決 定 要 因 | 比 率 |
|---|---|
| 市場의 需要 | 57 |
| 輸入制限 | 20 |
| 投資에 對한 法規 | 11 |
| 저렴한 勞動費 | 5 |
| 其 他 | 7 |

資料 : 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n trade, "The Role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Economies (Washington: 1972) p. 15 as quoted in Frnklin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73 p. 512

〈表 6〉 多國籍企業의 海外子會社分布

| 母企業의 國籍 | 開發途上國에 投資된 比率 |
|---|---|
| 美 國 | 25.3% |
| 英 國 | 31.8 |
| 佛 | 40.3 |
| 西 獨 | 12.8 |
| 스 위 스 | 14.4 |
| 日 本 | 83.8 |

資料 : United Nations,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日本의 자료는 N.Y. Yoshino著 "日本의 多國籍企業", 1976

### 4. 海外投資의 利益率

海外投資의 動機가 輸入制限 장벽을 넘기 위해서든지 또는 海外市場을 확보하기 위해서든지

長期的으로 볼 때는 그 動機가 國內市場에서 얻은 것보다 큰 利潤을 追求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明白한 사실인데 果然 多國籍企業들이 海外投資에서의 利益率은 얼마나 될까?

Colombia를 대상으로 한 1972年의 Constantine V.Vaitos의 조사에 의하면 Colombia 세무당국에 보고된 이익율은 6.7%로 나타나 있고 또한 1962年부터 1972年까지의 한국에 進出한 外國多國籍企業들의 果實送金 實績을 바탕으로 볼 때에도 利益率이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7)

만약 海外投資의 利益率이 진실로 10%이하로 이렇게 낮으면 왜 海外 多國籍企業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投資를 擴大해 나가고 있을 까? 다시 말해서 表面的으로 나타나는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에 대한 利益率과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海外投資의 成長速度 사이에는 分明 二律背反的인 要素가 개재되고 있는 것이다.

〈表 7〉 年度別 外國人投資到着 및 對外送金

(단위 : 千弗)

| 年 度 | 新投資 | 出 資 回收金 | 殘 高 (A) | 對外送金 (B) | B/A ×100 |
|---|---|---|---|---|---|
| 1962 | 3,927 | | 3,927 | — | |
| 1963 | 2,000 | | 5,927 | — | |
| 1964 | 3,204 | | 9,123 | — | |
| 1965 | 21,038 | | 30,169 | 98 | 0.32% |
| 1966 | 273 | | 30.442 | 229 | 0.75% |
| 1967 | 2,348 | | 32,790 | 229 | 0.70% |
| 1968 | 13,835 | 19 | 46,616 | 597 | 1.28% |
| 1969 | 7,030 | 200 | 53,446 | 5,537 | 10.36% |
| 1970 | 24,295 | 200 | 77,541 | 8,133 | 10.49% |
| 1971 | 34,850 | 571 | 111,820 | 8,325 | 7.45% |
| 1972 | 60,703 | 2,643 | 169,580 | 8,659 | 5.11% |
| 1973 | 191,115 | 4,166 | 356,529 | 15,375 | 4.31% |
| 1974 | 162,594 | 6,129 | 512,994 | 26,842 | 5.23% |
| 1975 | 61,626 | 5,919 | 568,701 | 23,979 | 4.22% |
| 1976 | 85,494 | 4,444 | 649,751 | 37,741 | 5.81% |
| 1977.6 | 38,340 | 4,430 | 683,661 | 37,486 | 5.48% |

資料 : 經濟企劃院

事實 多國籍企業은 投資對象國에서 그 政府나 言論기관에 의해 이윤의 착취를 하지는 않는가 하는 點에 대한 항시 감시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 企業의 PR상 높은 利益率을 발표할 처지가 못되며 따라서 發表하는 利益率을 낮추기 위하여 많은 手法을 쓰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쓰이고, 감독하기 힘들며 또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本支店 또는 支店끼리의 去來에 있어서의 결제가격인 대체가격(Transfer Pricing)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A국의 投資利益率을 인위적으로 낮게 발표하기 위하여서는 A국의 지점이 本店에서 수입하는 생산원료의 대가를 올려 버리거나 또는 A支店에서 本店 또는 他支店으로 판매되는 商品의 輸出가격을 임의로 내려 버리면 되는 것이다.

Colombia에 投資된 海外支店들의 例를 들면 의약품업계 外國會社들은 평균 약 155%정도 일반 수입가격보다 비싸게 수입대체가격이 매겨져 있고 고무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는 각각 40%, 16~60%정도 수입가격이 과대 計上되어 있다는 것이다. 同時에 수출에 있어서는 海外投資企業들이 Colombia 會社들보다도 平均 40% 이상 싼 값으로 수출가격이 計上되어 있어서 Colombia 세무당국에는 6.7%로 이익율이 보고 되어 있으나 대체가격조작을 감안하면 실제 利益率은 약 80%에 다다른다고 Vaitsos는 그의 박사학위 論文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 5. 海外投資의 展望

지금까지는 主로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를 企業自體의 側面에서만 考察을 하였으나 海外投資가 지속적인 成長을 하기 위하여는 多國籍企業, 投資母國, 投資對象國 等 모든 構成分子들 사이에 共通的인 利害關係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海外投資를 通하여 多國籍企業만이 利益을 보고 投資母國이나 投資對象國이 모두 損害를 본다면 多國籍企業은 도저히 持續的으로 海外投資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上記한 셋 構成分子들 사이에서 어느 特定分子의 損害위에 다른 分子들이 利益을 追求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모든 構成員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가 제로·섬(Zero-Sum)게임으로 생각하면 그 存立의 展望이 흐려 보일 것이며 오직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成長이 약속될 것이다. 이미 많은 數의 投資對象國 독

히 開發途上國들은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들을 投資對象國의 희생위에서 多國籍企業과 投資母國만이 利益을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여 多國籍企業의 擴大를 막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即 1974年 主로 開發途上國家들이 많은 投票權을 行使하는 UN에서 "多國籍企業의 行動강령"이란 多國籍企業의 活動에 極히 制約的인 결의를 채택한 바가 있어 多國籍企業의 지속적인 발전에 암영을 드리운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는 일반적으로 需要의 형태가 비슷한 先進國 相互間에 많이 일어나므로 UN의 결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6. 結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못하여 國內市場의 규모조차 그다지 크지 못한 우리나라의 經濟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海外市場의 침투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國內에서 生產하여 수출의 형태로 海外市場을 침투했으나 이제는 輸入國 대개가 自國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관세나 쿼타 등으로 수입의 장벽을 높이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海外에 直接投資를 하여 現地에서 생산을 해야 할 때가 올 것 같다. 또한 海外에 생산시설에 대한 投資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수입장벽 우회라는 소극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범을 잡을려면 산에 가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海外市場의 진정한 침투는 現地生產施設이 있어야만 그 市場의 기호를 빨리 알 수 있고 또한 판매된 제품의 아프터서비스(after service)도 할 수 있어 판매의 成長을 이룩할 수 있다는 積極的인 意味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1963年 南方開發이 말레이지아에 森林開發을 위한 1,500,000弗의 投資가 있은 뒤 1975年까지 總 106件 5천2백만弗의 投資가 있었을 따름이다. 多國籍企業의 國際生產高가 1971年 이미 世界貿易總量을 초과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國際經濟 교류에 있어서 貿易의 형태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世界經濟大國들은 벌써 自國出身의 多國籍企業 育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0億弗 수출을 달성한 우리 經濟도 輸出의 총액을 500億弗로 키우겠다는 經濟政策과 더불어 世界經濟의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韓國의 多國籍企業이 世界各處에 生產施設을 세울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